

지상 범석

업장만 두껍게 한다

그럭저럭 낚은 지물어가고 무척스님은 노인에게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업착(業著)이 있으면 잘 수 없다.”
마음이 번민과 집착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쉬어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계행(戒行)을 지키는가?”
“예,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업착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네는 여기서 잘 수가 없네.”
뒤아도 뒤음이 없고 지켜도 지켜지지 않는 경지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애써 지켜야 하는 단계에 있으니 업착이라고 한 것입니다. 노인은 시자인 공자를 시켜서 무척스님을 배움하게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절 이름을 물으니 ‘반야사(般若寺)’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한 노인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통자에게 물었습니다.

“동자여, 내가 대중의 수효를 물었는데 앞도 삼삼이 뒤도 삼삼이라 하였으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대덕(大德)이!”
“예”
“이 수효가 얼마나 됩니까?”
무척스님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 법문을 청했습니다.

“他力에 의지할지라도 기도인은 진성연기의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리 보이던 절은 씻은 듯이 보이지 않았습다. 스님은 오대산에서 돌아온 뒤에 공(空)과 색(色)이 화합되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여 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스님들이 도인이 되는 것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공양주(供養主)를 자칭했습니다.

하루는 큰 기마술에다가 죽을 끓이는데 갑자기 술에서 상사로온 광명이 나타나더니 문수보살이 연꽃처럼 피어 올랐습니다. 이전에 꿈에도 그랬던 문수보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대중들이 절을 하면서 경탄하였지만, 무척스님은 주적으로 문수보살의 뺨을 후리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문수는 내 문수요 무척은 내 무척이니라.”
그러자 죽의 방울방울로부터 천만의 문수보살이 나와 허공을 가득 채웠고 무척스님은 닥치는대로 주적으로 쳤습

지에 들어가면 티끌 수와 같이 많은 세계가 그대로 진여(眞如)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참 마음자리의 공무(空無)를 체득하여 어떠한 걸림도 없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를 비롯한 각종 수행의 끝입니다.

조급·게으름 버려야

부처님을 둘로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기도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요행수를 바라지 않고 자극정성을 드러낸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복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신앙심, 곧 타력(他力)에 너무 깊이 의존하면 마침내는 자기의 속까지 빠져 버리므로, 타력신앙을 통하여 일정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이를

로 뜯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조급증도 풍지 말고 게으름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법문을 들을 때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깨달음은 조급함이나 게으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함께 하는가? 텅 빈 마음과 함께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을 때, 법문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번뇌의 구덩이가 꼭 찬 곳에 맑은 물을 부어 보십시오. 물의 탁한 기운이 물어지지는 하겠지만 역시 구덩이가 될 수 밖에 없듯이, 잡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에 법문을 담으려고 하면 제대로 담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곧 모든 번뇌망상을 비우라고 한 것입니다.

실로 법문을 들을 때 있어서는 내게 맞는다는 생각이나 맛이 없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법문을 잘한다 못한다,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생각도 모두 번뇌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번뇌망상들을 완전히 비울 때 감로수(甘露水), 곧 감로의 법문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법문은 말로 설명하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빈 마음으로 설하고 빈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생각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4

김성규

의사 기바

부처님 당시 뇌수술이나 장폐색수술이 행해졌다고 한다면 선뜻 믿기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질병은 의사의 힘만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인과 병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아무리 고치기 힘든 불치의 병이라 하더라도 고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기바가 행한 최초의 뇌수술에 대해서 (사본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사성에 한 장자가 있어 항상 두통을 앓고 있었다. 고치는 의사가 없었다. 많은 의사가 진찰을 하고 여러 가지 처방을 내렸지만 모두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죽는다고 말했다. 어떤 의사는 일년 후에 죽는다고 했고, 어떤 의사는 7개월 후에 죽는다고 했으며, 또 어떤 의사는 7일 후에 죽는다고 했다. 그때 이 장자는 부처님의 제자중 병을 잘 다스리는 기바라는 명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기바를 찾아가 인사드리고 말했다.

“기바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면 황금 백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기바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장자여, 나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습니



기바는 장자에게 잔 음식을 먹게하여 주란을 늘려 술에 취하게 하였는데 술의 힘을 빌어 전신마취를 시켜 수술하고자 생각한 기바의 착상은 현대의학과 다름없는 것이다. 더욱이 얼굴에 의하여 마취된 장자의 머리를 메스를 써서 머리를 열고 머리뒷뼈를 열고 뇌의 내부로 들어가 병소를 제거한 것은 현대의 의학이 행하는 뇌수술과 조금도 다름

부처님의 가르침 ‘사성제’ 의술로 실천 뇌·장폐색 수술방법 현대의학과 비슷

다. 병은 자극정성으로 고쳐지는 것이지 돈이나 총정성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 돈으로 편하게 지내십시오.”

치료를 거절당한 그 장자는 왕을 찾아가 자신의 병을 호소하며 기바로 하여금 자신의 병을 치료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왕은 기바를 불러 그 장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하여 기바는 그 장자의 집을 가서 장자에게 어떻게 아픈지 병이 언제 처음 발생했으며, 증세가 어떤지 여러가지를 물더니 장자에게 말했다.

“장자여, 나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바는 며칠동안 그 장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장자에게 계속 음식을 짜게 하게 하였다.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장자에게 기바는 술을 주어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게 한 뒤,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자리에 똑바로 앉혔다. 잘 드는 수술 칼로 머리를 절개하여 뼈를 열고 골의 내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씻었거나 단단해진 부분을 잘라낸 후 깨끗하게 닦아내고 유밀을 머리 속에 넣고 다시 뼈를 붙이고 머리를 가죽으로 된 실로 봉합하고 상처가 잘 낫는 좋은 약을 발랐다. 수술을 마친 기바는 수술하는 것을 지켜본 장자의 친척들에게 잘게해 낸 머리부분을 보여 보이며 말했다. “빌레가 먹은 것 같은 이것이, 똑같이 단단해진 이것이 장자가 두통을 앓은 원인입니다. 이제 그 원인을 제거했으니 장자는 두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는 안심하십시오. 장자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가 없음을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후 기바는 몇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행하게 되며 이어서 장폐색 수술도 행하게 된다. 경전 <대품 법의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느 때 바라나사 장자의 아들이 근두늘이를 하다가 병을 얻었는데 소화가 안되고, 대변도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몸이 말라 비뚤어지고 피부색이 점점 누른색으로 변했으며 활력이 팔다리와 온몸에 퍼져 나왔다. 기바는 바라나사에 있는 장자의 집으로 가서 그의 몸을 살펴보고 만져보며 진찰하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장막을 치게 하고 주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 장자의 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기둥에 묶었다. 그리고 나서 잘 드는 칼로 뺨가죽을 베고, 꼬여 있는 참자를 들어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보이면서 “이것이 병의 원인이다”고 설명하여 주었다. 그리고 난 뒤 기바는 꼬여 있는 참자를 끊어 원래대로 하고나서 배를 풍합하고 약을 발랐다. 얼마후 장자의 아들은 예전과 같이 잘 먹고 대변도 잘 보게 되었다.”

기바가 행한 의술은 기바의 뛰어난 천재성에 의한 것이지만 근본 정신과 방법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병(苦)의 생긴 원인과 병의 상황(集)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처방(道)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 병은 낫게(滅) 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는 궁극적인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도 적용되는 만병통치 실천방법인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걸림없는 텅빈마음 체득이 수행의 끝 “번뇌망상 비워야만 감로법문 고스란히 담겨”

“동자여, 나를 위해 법문을 해주시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로 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面上無染供養具 口裡無雜妙香 心內無礙是珍寶 無始無終頂頂常

산하대지가 한 뿌리

술래없는 생각 말고 부처런히 참선하라. 날마다 하루 종일 누굴 위해 바랄건가. 바른 중에 한가로운 소식을 알면 한 그루 연꽃이 붉은 물에 피리라.

莫妄想 好參禪 不知終日爲誰忙 若知心中真消息 一草一木盡生佛身 이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 크게 깨달은 무척스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

니다. 이에 문수보살은 자취를 감추며 일러 주었습니다.

내가 삼대검을 수행하였건만 오늘 노승이 협의를 입고 돌아가는구나.

은 꼬두박은 뿌리까지 쓰고 단 참외는 꼭지까지 달도다. 爾三大劫修行 還被老僧疑 苦瓠連根苦 苦瓠連根苦

무척스님은 진성연기를 알아서 완전히 공(空)과 더불어 상응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 이외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사(邪)임을 알고 허공 속의 문수보살을 주적으로 치면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진정 수행인이 온전히 공을 체득하게 되면, 그의 일거수 일투족(一舉一投足)에는 아무런 조좌도 없게 될 뿐 아니라 아무런 결림도 없게 됩니다.

산하대지(山河大地)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를 이루고 천지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서, 천진난만한 세계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이런 경

경계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기도인은 반드시 자력(自力)을 가지고 타력(他力)을 믿어야 합니다. 곧 타력에 의지할 지라도 진성연기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비결이요, 기도를 통하여 해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요긴한 가르침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모름지기 모든 생각을 비우고 들어야 합니다.

속욕심도 내지 말고 내태심도 내지 말라. 슬금슬금 가다 보면 해돋을 때 아니올가.

이 옛 노래는 인생살이에 대한 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런히 간다고 하여 해가 빨리 뜨는가? 아닙니다. 느릿느릿 간다고 하여 해가 늦게 뜨는가? 아닙니다. 해는 뜰 때가 되면 저절

이라 하더라도 번뇌망상에 불과합니다. 이를 분명히 자각하여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게 되면 깨달음의 기운은 반드시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법(法)의 문(門)을 열고 법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요긴한 비결입니다.

똑같은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도를 깨치는데 어떤 사람은 도를 깨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과 같은 광명을 뽐내고 어떤 사람은 더욱 앞만 해지기도 합니다. 독을 만들 것인가, 짓을 만들 것인가? 보리(菩提, 깨달음)를 이룰 것인가, 생사를 이룰 것인가?

그 열쇠는 각자가 쥐고 있습니다. 마음 가득 번뇌망상을 담고 말만 배우고 자 하거나 지식 충족의 수단으로 법문을 듣는다면 생사 이외에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스스로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으면 틀림없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모든 선지식이 한결같이 말씀하셨듯이, 모름지기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들도록 합시다. 머지 않은 날, 틀림없이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佛敎聖地巡禮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담아 있었습니다.”

태국 5일

₩ 595,000

서울-방콕(2박)-아이유타, 방파인, 수상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메랄드 사원, 무암보란, 황금불 사원-파타야(2박)-방콕-서울
·출발일: 2월/16, 21, 23, 28 3월/2, 7, 9, 14, 16, 21, 23, 28, 30

대만 5일	₩ 595,000	서울-대만(일월담(1박)-고웅·불중사(1박)-화련(1박)-대북(1박)-서울	2월/22 3월/1, 8, 15, 22, 29
스리랑카 6일	₩ 1,070,000	서울-콜롬보(1박)-아누다라푸라-히바라나(2박)-폴론나푸와-덤볼라-켄디(1박)-콜롬보(1박)-서울	2월/17, 24 3월/3, 10, 17, 24, 31
미얀마·태국 8일	₩ 1,400,000	서울-방콕-양곤(1박)-괘간(1박)-만달레이(1박)-양곤(1박)-괘구-양곤(1박)-방콕(2박)-서울	2월/17, 24 3월/3, 10, 17, 24, 31

여행조건 10인 이상 출발(허니문은 1쌍이라도 매일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허니문은 특급호텔),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新春海外旅行

-최고의 여정·최상의 서비스·최대의 기쁨-

방콕·파타야 5일	₩ 68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2월/18, 19, 22, 25, 26 (₩715,000) 3월/1, 4, 5, 8, 11, 12, 15, 18, 19, 22, 25, 26, 29
방콕·푸켓 5일	₩ 795,000	서울-방콕(1박)-푸켓(3박)-서울 2월/16, 18, 19, 23, 25, 26 3월/4, 11, 18, 25 (₩725,000)
동남아 3국 5일	₩ 745,000	서울-싱가포르(4박)-마닐라·조호바루-서울 2월/17, 18, 20, 22, 24, 25, 27 3월/1, 3, 4, 6, 8, 10, 11, 13, 15, 17, 18, 20, 22, 24, 25, 27, 29, 31 (₩655,000)
방콕·푸켓·싱가포르 6일	₩ 895,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싱가포르(2박)-서울 2월/16, 21, 23, 28 3월/7, 14, 21, 28 (₩795,000)-
하와이 5일	₩ 679,000(일급) ₩ 765,000(특급)	서울-호놀룰루(3박)-기내(1박)-서울 2월/16, 18, 22, 25, 25 3월/1, 2, 4, 8, 9, 11, 15, 16, 18, 22, 23, 25, 29, 30
미국 서부 버스 7일	₩ 799,000	서울-LA(1박)-올레스트(1박)-라스베가스(1박)-후레스노(1박)-샌프란시스코(1박)-기내(1박)-서울 2월/17, 20, 24, 27 3월/6, 13, 20, 27
유럽 5개국 10일	₩ 1,790,000	서울-영국-독일-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서울 2월/16, 23 3월/2, 9, 16, 23, 30
사이판 4일	₩ 735,000	서울-사이판(3박)-서울 2월/16, 17, 19, 23, 24, 26 3월/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괘 4일	₩ 735,000	서울-괘(3박)-서울 2월/16, 23, 26 3월/2, 5, 9, 12, 16, 19, 23, 26, 30 (₩645,000)
호주·뉴질랜드 8일	₩ 1,745,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코포루어(2박)-오울랜드(1박)-시드니(2박)-서울 2월/16, 18, 19, 23, 25, 26, 27, 28 3월/2, 4, 5, 7, 9, 11, 12, 14, 16, 18, 19, 21, 23, 25, 26, 28, 30 (₩1,545,000)

新婚旅行

“새로운 출발, 허니문 전담팀이 권해 드리는 일곱살까 무지개 여정”

방콕·파타야 5일	₩ 635,000	서울-방콕(1박)-파타야(2박)-방콕(1박)-서울
푸켓 5일	₩ 740,000	서울-방콕(1박)-푸켓(2박)-방콕(1박)-서울
대만(화련) 4일	₩ 520,000	서울-대만(화련) 3박-서울
괘 4일	₩ 670,000	서울-괘(3박, 4박)-서울
사이판 4일	₩ 670,000	서울-사이판(3박, 4박)-서울
하와이 5일	₩ 790,000(일급) ₩ 890,000(특급)	서울-하와이(3박)-기내(1박)-서울
호주 5일	₩ 1,109,000	서울-기내(1박)-골드코스트(1박, 2박)-시드니(2박)-서울

특전 2개월 전 예약시 5% 할인, T-Shirt, 모자 증정, 축하 와인, 과일바구니 제공, 해산을 부케 제공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주) 아태관광

국외여행업 제 817 호

732-3200 (대)

21세기를 지향하는